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과 중국 정세
(2017년 8월 2주차)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 나라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상반기 |
|-----|-------|-------|--------|--------|-----------|
| 한국 | 9.40% | 9.70% | 10.40% | 10.00% | 9.40% |
| 일본 | 8.30% | 8.30% | 8.50% | 9.20% | 8.90% |
| 미국 | 7.80% | 8.10% | 8.80% | 8.50% | 8.70% |
| 타이완 | 8.00% | 7.80% | 8.50% | 8.80% | 7.80% |
| 호주 | 5.10% | 5.00% | 4.40% | 4.50% | 5.60% |

자료 : 중국 해관총서

한국,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불안한 1위... '사드 여파'

올해 상반기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9.4%로 1위를 기록하였지만, 일본과의 격차가 0.5% 포인트까지 좁혀졌다고 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2위인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가 2013년 이후 가장 많이 좁혀졌고 올해 월별기준으로 4월·6월에는 일본에 1위 자리를 내주었는데요.

중국기업과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중국진출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애플이 차이나드림 막아" 中앱개발자들 '앱스토어 갑질' 고발

10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28개 앱 개발자들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애플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애플 측이 앱스토어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합당한 이유 없이 그들의 앱을 삭제하는가 하면 인앱(in-app) 결제에 부당한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애플이 중국의 젊은 개발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해, 이들의 차이나 드림을 방해한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이에 대해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중국 개발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중국·인도 영토 분쟁지역



중국-인도 '국경분쟁' 군사적 충돌 임박

최근 중국과 인도 무장병력 수천 명이 국경지대에서 2 달째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인도의 철군을 압박하며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 갈등은 중국 티베트-인도 시킴-부탄 3개국 국경선이 만나는 '도카라' 지역에서 중국군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연이은 성명 발표를 통해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다웨이 中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은퇴

중국의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맡았던 우다웨이(武大偉·70) 전 외교부 부부장이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4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궁쉬안유(孔鉉佑·58)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그 자리에 임명됐다고 합니다. 중국 헤이룽장 성 출신인 우다웨이는 1985년부터 2004년까지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 활동해 '아시아 통(通)'으로 불리는데요. 1998~2004년까지 주한 ,주일 중국대사를 역임하였고, 이후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을 맡으면서 북핵 6자 회담 중국측 대표를 맡아 왔으며, 2010년 2월부터는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맡아 북핵 협상 등 한반도 및 아시아 문제를 담당하는 핵심 당국자로 활동했습니다.



[기사/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

YONHAP NEWS

"中 왕치산 사실상 유임 확정… 차기 정치국위원 예비경선 실시"

시진핑 집권 2기를 앞두고 중국 공산당이 차기 정치국 위원 후보 35명을 상대로 예비경선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시진핑과 리커창 총리에 이어 세 번째로 정치국 위원 후보에 올라 사실상 유임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진핑이 왕 서기를 총리로 기용해 경제개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정·재계 정보가 많은 왕 서기는 기득권 저항을 무력화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中 베이다이하 비밀 회의 개최, 시진핑 맞수 장쩌민 불참

중국이 전, 현직 지도부의 비밀 회동인 베이다이하 회의가 시작됐음을 인정했는데요. 이날 이곳에는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주요 건설공사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총지휘자, 총설계사, 수석과학자, 부문별 책임자 등 국가급 인재들이 초대되었다고 하네요. 한편 이번 베이다이하 회의는 시 주석의 1인집권체제를 완성하는 제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특히 더 쏠리고 있는데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장쩌민 전 주석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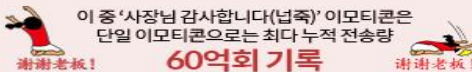


귀엽고 앙증맞은 이모티콘으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차오옌탄쯔(长草颜团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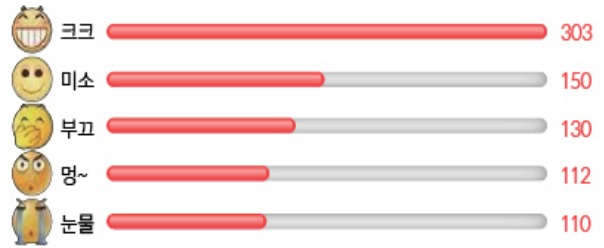
누적 다운로드 수 **8억회**
이모티콘 전송량 **180억회 이상**



과격하면서도 솔직담백한 표현 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즈런샤오nü(制冷少女)**



이 중 '사장님 감사합니다(넵축)' 이모티콘은 단일 이모티콘으로는 최다 누적 전송량 **60억회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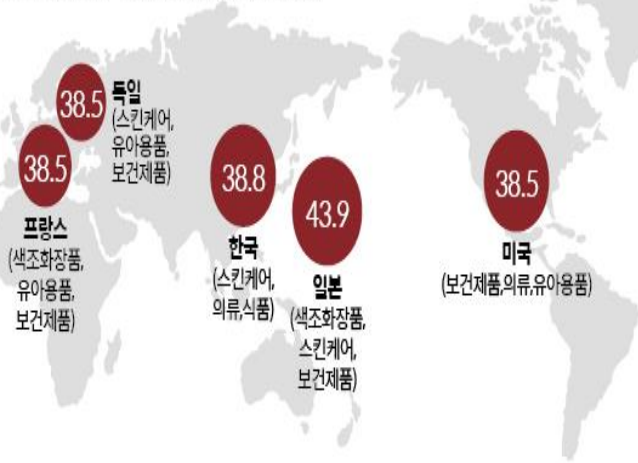
<자료=텐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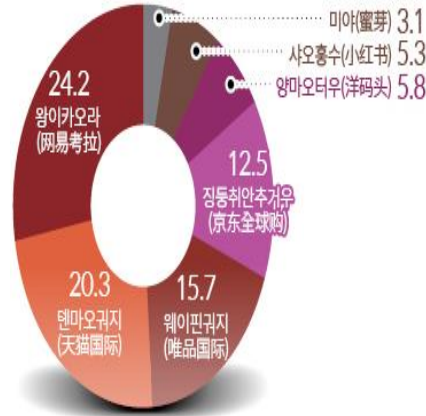
크크 미소 부끄 멍~ 눈물 , 중국인 이런 이모티콘 날린다

최근 텐센트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QQ 유저수는 8억 7700만명으로 이모티콘 전송량만 무려 3187억 회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이모티콘 산업은 이제 초기 발전단계에 들어섰지만, SNS와 메신저 등이 보편화 되면서 다양한 이모티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모티콘 IP와 기업 브랜드간 협력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해외직구 국가별 제품 비중 단위. %



2017년 상반기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별 점유율 단위. %



2017년 상반기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선택 이유

| 해외직구 선택 이유 | 비중 (%) |
|------------|--------|
| 우수한 품질 | 57.7 |
| 가성비 | 34.4 |
| 다양한 브랜드 | 30.9 |
| 정품보장 | 30.2 |

7조 中 해외직구시장, 폭풍성장 지속

한 시장조사기관은 중국의 해외직구 규모가 매년 두 자리 수 성장을 지속하면서 올해 7조 5000억위안(약 120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해외직구 ‘선호 현상’은 우수한 품질, 가성비, 다양한 브랜드 등의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국가별 제품구매 비중을 보면, 일본과 한국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업체별로는 왕이카오라(網易考拉)가 시장점유율 24.2%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